

예배시간: 오후 12 시

경배와 찬양(Praise)		다함께
성경 교독(Responsive Reading)	시 118:1-5	다함께
봉헌(Offertory)	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	다함께
말씀(Message)	마 28:19-20; 딤후 2:2 가서 제자를 삼아라	박규성 선교사
헌신과 결단(Dedication)	여기에 모인 우리	다함께
축도(Benediction)		안광문 목사
교회소식(Announcements)	새로운 만남과 나눔 & 축복	인도자
성도의 교제(Fellowship)	축복합니다	다같이

■ 예배 위원 ■

섬김 순서	교독문	안내	헌금
이번주 (4/13)	시 118:1-5	김흥기	김미희
다음주 (4/20)	시 119:9-12	김흥기	김미희

■ 섬기는 분들 ■

담임목사	안광문	인도/반주	양하늘, 임승환
협동목사	임승환	교 사	안시온
교 역 자	양하늘	후원선교단체	New Creation Mission

[목장에서 나눌 질문]

1. 여러분은 복음전도에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?
2. 최근 전도했던 경험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보세요
3. 여러분이 1-1-1 전도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이유를 나눠 보세요.

가깝지만 먼 나라

만약 “가깝지만 먼 나라”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? 아마 “일본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가깝지만 먼 나라인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. 우선 인종적으로 같아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우리가 보더라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.

그리고 언어도 비슷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6 개월정도만 살아도 웬만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. 우리와 다른 점도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는 “원조 할머니 설렁탕”처럼 “원조”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“원조”보다는 자기들에게 맞춰서 바꾸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. 대표적 음식이 “돈까스”와 “고로케”입니다.

또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0%정도지만 일본은 3%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렇게 다른 이유는 전통적인 신관 - 다신론으로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은 8 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- 과 같은 근본적 이유도 있겠지만 임진왜란 이후 300 년 넘는 기간동안 일본 정부에 의해 철저하고 잔인한 탄압의 역사를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.

어쩌면 이러한 기독교 탄압의 역사는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“패가망신한다”는 문화적 장벽을 만들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슬람이나 중국처럼 종교적인 장벽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크고 높은 문화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.

- 안광문 목사 -

◆환영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새가족부실에서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.

◆금년 사역 주안점

•예배의 회복 •목장모임의 회복 •지역 섬김

- 예배의 회복, 목장모임의 회복, 지역 섬김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는 한 해가 되기를

◆교회 소식

- 오늘 (4/13)은 박규성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십니다.
- 다음 주일 (4/20)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.
- 다음 주일 (4/20)에는 주의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.
- 데살로니가전서 1-3장 말씀 중에서 7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.

◆생명샘 가족 동정

- 정일남 / 옥분 집사님 한국 방문 중입니다. (3/16부터 2개월)
- 엄경희 집사님 업무 일정 조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.
- 백경희 권사님께서 요양원으로 입원하실 예정입니다.